

- 주요 뉴스: 미국 법무부, 연준 파월 의장 수사. 파월은 정치적 탄압에도 임무 완수 강조
 - 이란 외무장관, 국내 소요 진압. 미국은 이란과 거래 국가에 25% 관세 부과
 - EU, 중국과의 전기차 수입 협상 합의 근접. 유로존 1월 투자자 신뢰는 상승
 - 그린란드 정부, 나토를 중심으로 방위 노력 강화. EU도 필요 시 지원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기업실적 기대, 12월 소비자물가 관련 낙관적 전망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파월 수사 불구 강세장 지속 기대 등으로 반등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반도체 및 제약 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3%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압박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66.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7.5원, 0.06% 하락). 한국 CDS 강보합

		1/12일	1/9일	전일대비			1/12일	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77.3	6,966.3	+0.16%	국채 금리 10y	미국	4.18%	4.17%	+1bp
	유럽	610.95	609.67	+0.21%		독일	2.84%	2.86%	-2bp
	중국	4,165.3	4,120.4	+1.09%		영국	4.37%	4.37%	-0bp
	일본	휴장	51,940	-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4,624.8	4,586.3	+0.84%		중국	42bp	41bp	+1bp
	달러지수	98.88	99.13	-0.25%	위험 지표	EMBI+	-	264	-
환율	유로화	1.1667	1.1637	+0.26%		VIX	15.12	14.49	+4.35%
	엔화	158.14	157.89	-0.16%		WTI유	59.50	59.12	+0.60%
	위안화	6.9731	6.9783	+0.07%	원자재	구리	600.4	590.3	+1.72%
	원화	1,468.4	1,457.6	-0.74%		금	4,597.5	4,509.5	+1.9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법무부, 연준 파월 의장 수사. 파월은 정치적 탄압에도 임무 완수 강조

- 파월 의장은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영상을 통해 공개. 이번 사안은 연준 본청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파월 의장이 작년 6월 의회 증언 시 예산 집행 내역을 축소 및 허위 보고했다는 ‘의회 위증 혐의’가 핵심
- 연방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둔 강제수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백악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개입설을 부인.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
- 이와 관련하여 전 연준 의장들과 유명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 표명. 특히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행태는 제도가 취약한 신흥국에서나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인플레이션 및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적 입장 표명
-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채수익률의 상승 및 이에 따른 전반적인 금융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PGIM).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제도적 규범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Bloomberg Economics)
- 이날 정규 증시가 열리기 전에 주요 주가지수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신호가 발생. 다만, 정규장이 시작된 후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며 관련 불안을 조금씩 해소.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Wolf Research)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G7, 12일 핵심 광물의 원활한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 EU와 한국 등도 참석

- G7은 12일 회의를 열고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원활한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주제는 ‘긴급성’이라고 밝히고,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발언. 한편 이번에는 G7 이외에 한국, 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도 참여할 예정. 이들은 핵심 광물의 주요 소비국으로 G7을 포함할 경우 전체 수요에서 60% 비중 차지

■ Goldman Sachs, 연준의 금리인하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

- 금년 연준의 금리인하는 9월 및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는 당초 전망(3월 및 6월)에 비해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노동시장이 전에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 한편, 올해 유가는 원유시장의 공급 우위 상황이 이어져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

■ 이란 외무장관, 국내 소요 진압. 미국은 이란과 거래 국가에 25% 관세 부과

- 아락치 외무장관은 2주 동안 이어졌던 혼란을 당국이 완전히 진정시켰으며, 이번 시위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선동했다고 비난.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

■ EU, 중국과 전기차 수입 협상 합의 근접. 유로존 1월 투자자 신뢰는 상승

- 중국과의 전기차 관세 관련 협상에서 최저 가격제 도입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해당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EU는 비차별적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은 전기차를 특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
- 한편, 유로존 1월 섀프티스 투자자 신뢰는 -1.8을 기록, 전월(-6.2) 대비 상승했고, 이는 작년 7월 이후 최고치. 시장에서는 유럽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점차 투자자 신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평가

■ 그린란드 정부, 나토를 중심으로 방위 노력 강화. EU도 필요 시 지원할 방침

- 그린란드 자치 정부는 나토를 중심으로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 한편, EU의 쿠빌리우스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그린란드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

■ 중국 시진핑, 부패와의 전쟁 강조. 허리핑 부총리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

- 시진핑 주석은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기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 한편, 허리핑 부총리는 외국 기업과 자본의 중국 투자, 그리고 민관 협동 등을 적극 환영한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뉴욕 연은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압박, 실익 없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 - 블룸버그

(Prosecuting Powell would be new low with no upside)

- 정부는 파월 연준 의장이 건물 개보수 관련 위증 혐의로 형사 기소 시도. 이는 통화정책 결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파월 의장의 과거 정책 오류와는 별개로 정당성이 약하며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만 훼손. 이러한 압박은 보다 나은 통화정책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이를 반영하듯 관련 뉴스가 보도된 직후 달러화 약세, 금 가격 상승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 이는 이번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투자자 우려가 반영되었음을 시사.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으나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경제 여건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

■ 미국 파월과 트럼프 갈등, 금융시장 영향은 상이. 인플레이션은 경계 사안 - 블룸버그

(What Powell's Spat With Trump Means for Markets)

-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심화가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 우선 연준 독립성 우려 등으로 금 가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반응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이는 트럼프의 향후 연준 장악 우려를 반영. 또한, 적정 수준보다 낮은 금리가 조성되면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달러화 약세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
- 한편, 증시는 금리인하를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 상존. 이 경우, 미국 증시 고평가 등으로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분산 투자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시장의 진정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때 나타날 소지. 특히 힘없는 연준과 금리인하에 적극적인 정부가 결합된다면 금융시장은 상당히 큰 혼란에 직면할 우려

■ 중국의 해외 투자, 미국을 추월. 양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블룸버그

(As the US Lures Investment Home, China is Splashing Cash Globally)

- 과거 오랫동안 세계 최대 해외 투자국이었던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자국 내 투자 유치에 집중. 한편, 중국은 해외에 새로운 공장 건설 추진 등 국외로의 자본 이동이 활발. 이에 '25년 상반기 중국의 해외 투자는 미국을 추월하며 전 세계 비중의 10%를 차지. 반면 미국은 글로벌 해외 투자액의 20%를 흡수(OECD)
- 중국 해외 투자 확대는 대규모 무역흑자와 미국채 투자 호피 등에 기인.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해외 공장 및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 녹색부문 프로젝트 활성화 등으로 이제 시작된 양국 간 해외 자본 투자 역전은 격차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덴마크의 그린란드 분쟁, 나토 해체 위험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Europe needs to think the unthinkable on Nato)

- 트럼프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해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위협. 이에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침공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대응. 일부 EU 회원국은 러시아 위협을 이유로 나토 체제 유지를 강조하나, 회원국 간 공격이 시작된다면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조약은 무의미. 이는 결국 나토의 해체 가능성을 의미
- 그러나, 만일 나토가 해체되면 이는 유럽에게 큰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 해체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안보협정이 신속히 체결되어야 하나, 막대한 비용 및 의무병역제 도입 등이 해결되어야 가능. 또한, 미국은 나토 해체 시 개별 국가에 협력 및 경제적 압박 등을 시도할 가능성. 나토 해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나, 역사적 사례 고려 시 현실화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미국 트럼프의 파월 조사, 차기 연준 의장에 보내는 간접 경고 - WSI

(Trump's Investigation of Powell Is Also a Warning to the Next Fed Chair)

■ 미국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제한, 은행 수익 및 안정성 저해 - Financial Times

(Trump hits banks where it hurts: their credit card divisions)

■ 미국 가계의 고용에 대한 우려, AI 확산 등을 고려 시 합리적 반응 - 블룸버그

(US worries about the labor market are reasonable)

■ 美中 갈등, 양국 간 자원 확보 경쟁 및 중상주의 영향 등으로 지속될 소지 - Financial Times

(Trump's new 'great game': mining, mapping and mercantilism)

■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과 미국의 제재 해제는 국가부채 해결의 실마리 - Financial Times

(Can Venezuela settle its deb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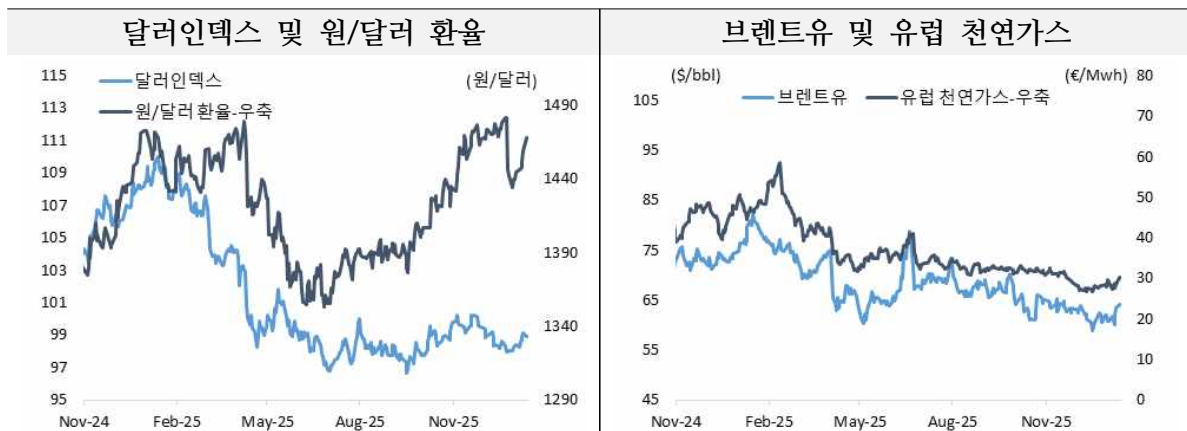
■ 이란 위기, 중국 수입 차질·호르무즈 위협 등으로 유가 상승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What's at Stake for the Oil Market If Iran Crisis Escal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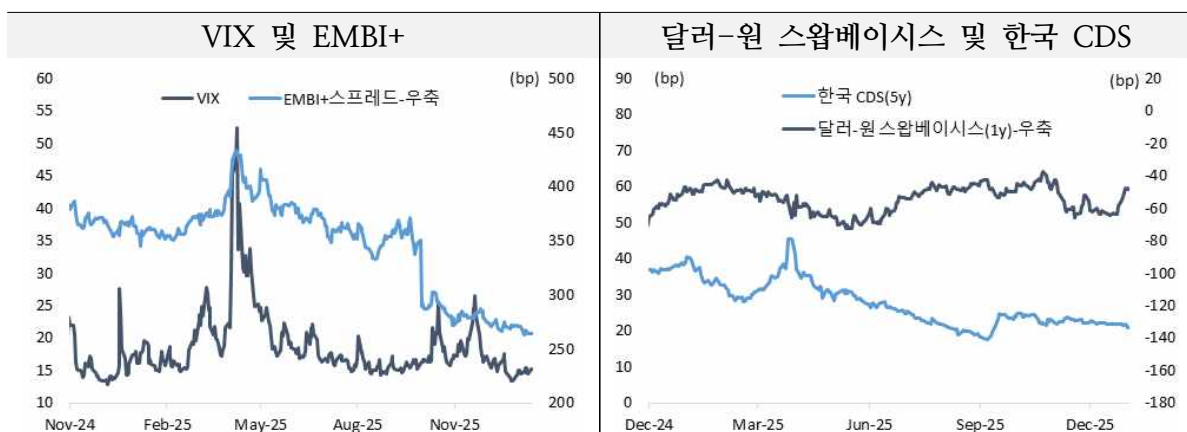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